

벤투호, 무패·1위로 월드컵 간다...오늘 UAE와 최종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최종 10차전 예정

2010 남아공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최종예선 무패 도전

손흥민, 4골 터뜨리며 아시아 최종예선 득점부분 공동 선두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한국 축구가 내진김에 최종예선 무패, 조 1위 통과를 노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9일 오후 10시45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UAE를 상대로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최종 10차전을 치른다.

지난 24일 이란과의 9차전에서 손흥민(토트넘), 김영권(울산)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둔 벤투호는 최종예선에선 5연승, 9경기 무패(7승2무) 중이다.

또 11년 만에 이란을 잡으면서 A조 1위로 올라섰다. 7승2무(승점 23)로 이란(7승1무1패 승점 22)을 따돌렸다.

최소 조 2위를 확보, 일찌감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벤투호는 최종전에

서 유종의 미를 거둬 조 1위 확정을 노린다.

UAE를 꺾으면 이란의 최종 레바논전 결과와 상관없이 자력으로 조 1위를 확정한다. 역대 최종예선 최고 승률도 새기록을 한다.

5~6개국 리그방식으로 최종예선을 치르기 시작한 1990 이탈리아월드컵 최종예선 이래 최고 승률은 차범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1998 프랑스월드컵이다. 8전6승1무1패로 75%.

벤투호가 UAE를 잡으면 승률 80%를 기록하게 된다.

또 2010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2009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예선을 무패로 통과할 수 있다.

한국은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와 한 조에서 경쟁해 4승4무를 기록, 조 1위로 북한과 함께 본선

에 진출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당시 한국은 본선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2014 브라질월드컵(4승2무2패)과 2018 러시아월드컵(4승3무3패) 최종예선에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본선행을 확정했다.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까지 12개 출전국 중 무패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과 UAE의 상대전적은 한국이 20전 13승5무2패로 크게 앞선다. 2008년 10월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을 시작으로 최근 6연승 중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최종예선 첫 맞대결에서 황희찬(울버햄튼)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대표팀 합류 전 소속팀에서 멀티골로 예열을 마쳤던 손흥민이 이란전에서 통쾌한 골맛을 봐 활약이 기대된다.

손흥민은 4골을 터뜨리며 메흐디 타레미(이란), 우레이(중국), 이토 준야(일본), 살레 알 세흐리(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아 최종예선 득점부분 공동 선두에 있다.

UAE전 활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손흥민은 이란전이 끝난 뒤 "최종예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경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여기에 황의조(보르도), 김민재(페네르바체) 등 주요 선수들이 이란전 교체로 체력을 안배하는 등 UAE 원정을 대비한 준비도 마쳤다.

백승호(전북)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체 발탁된 원두재(울산)가 오른 어깨 부상으로 빠지고, 공격수 조규성(김천)이 이란전 이후 확진으로 이탈한 게 변수다. 조규성을 대신해 독일에서 뛰는 이동준(헤르타 베를린)을 불렀다.

뉴스

“팬 서비스 적극적으로...일탈행위 금지”

허규연 KBO총재



허규연(71)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가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팬 서비스를 주문하며 일탈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허 총재는 28일 “글로벌 세 마음을 선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다”며 서면 취임사를 전했다.

먼저 허 총재는 지난 2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낸 야구계의 현실을 짚으며 2022시즌의 중요성을 밝혔다.

“KBO리그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계속 해서 침체되느냐 하는 기로에 선 해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팬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보다는 각종 사건, 사고, 국제대회 성적 부진 등으로 팬들을 실망시키고 급기야 이탈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던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로다운 높은 수준의 기량을 선보이고, 동시에 경기장 안팎에서 진정성 있는 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는 선수들이 해야 할 의무”라며 “야구팬이 없는 프로야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선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주의도 환기시켰다.

허 총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불(不)로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 범죄, 약물

복용을 들며 “금지 사항으로 특별히 지켜 주기 바란다. 최근 일부 선수의 일탈이 야구계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야구 출범 41년째를 맞이하는 금년 시즌부터 여러분이 ‘팬 퍼스트(Fan First)’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시즌을 시작하고 진행했으면 한다”며 “KBO리그가 2025년 대전베이스볼드림파크 완성 후에는 1000만 관중 시대를 열 수 있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허 총재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으로 등장한 ‘야구인 출신’ 총재다.

경남과 상업은행, 고려대, 한일은행에서 현역 시절을 보낸 허 총재는 은퇴 후 해설자로 명성을 날렸다. 1985년 겨울에는 34세의 나이로 정보 핀토스의 지휘봉을 잡아 역대 최연소 프로야구 감독 기록을 세웠다.

허 총재의 임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다.

여자농구 박지수, 두 시즌 연속 MVP·7관왕

110표 만장일치...통산 세 번째 정규리그 MVP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의 국보 센터 박지수(24)가 2021~2022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하며 두 시즌 연속 최고 자리에 올랐다. 동시에 두 시즌 연속으로 7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박지수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생명 2021~2022시즌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MVP를 받았다.

기타 110표 만장일치였다. 그만큼 압도적이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이자 통산 세 번째 MVP 수상이다.

박지수는 정규리그 26경기에서 평균 21.19점 14.38리바운드 4.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소속팀 KB국민은행을 25승5패,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다.

또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 번 MVP 포함 7관왕을 차지했다. WKBL 역사상 한 시즌에 7개 부문 상을 휩쓴 건 박지수가 최초다.

박지수는 MVP, 베스트5, 우수수비수상, 득점상(21.19점), 2점야투상(59.8%), 리바운드상(14.38개)을 휩쓸었다. 공헌도가 가장 높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윤덕주상도 박지수의 몫이었다.

코로나19 이슈로 시상식은 참석하지 못했

다. 용인 삼성생명의 이해란은 생애 한 번 뿐인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기자단 투표 110표 중 100표를 받았다.

광주 수피아고 출신으로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입단한 이해란은 28경기에서 평균 5.8점 3.1리바운드를 올렸다.

국가대표 슈터 강이슬은 3득점상, 3점야투상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베테랑 김단비와 한채진(이상 신한은행)은 각각 블록슛상(평균 1.79개), 스틸상(평균 1.6개)을 수상했다.

박혜진(우리은행)은 90.38%의 높은 성공률을 앞세워 자유투상의 주인공이 됐다. 6개 구단 전체 선수 중 유일한 90%대 성공률을 자랑했다.

어시스트상은 안혜지(BNK)가 받았다. 경기당 6.27개를 기록했다.

모범선수상은 신지현(하나원큐), 식스우먼상은 이경은(신한은행), 기량발전상은 이소희(BNK)가 받았다.

KB국민은행의 정규리그 1위를 지도한 김완수 감독은 부임 첫 시즌에 지도자상을 받았다.

뉴스

‘첫 멀티히트’ 김하성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클리블랜드와 시범경기서 2안타 1득점...타율 0.385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7)이 올해 시범경기서 첫 멀티히트를 만들어냈다.

김하성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던 김하성은 이날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를 작성하며 타율을 0.385(13타수 5안타)로 끌어올렸다.

1회 2루수 뜬공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4회 1사 1루에서 우전 안타를 때려냈다. 에구이 로사리오의 중전 적시타에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6회 2사 후에도 우전 안타를 날려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7회초 수비를 앞두고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

무리한 김하성은 현지 중계 방송사와 인터뷰에도 나섰다.

김하성은 “지난해보다 경기를 준비하는 것도 편하고, 생활에서도 동료들과 가까워지고 좋다”며 메이저리그 2년 차의 여유를 보였다. 이어 “몸 상태도 좋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다. 체중 유지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며 “매 순간 경기에 나갈 때마다 값진 경험이고, 좋은 시간”이라고 회상한 김하성은 “우리 팀 문화 자체가 경기를 즐기고 있어 재미있다. 경기가 늘 기다려진다”고 눈을 빛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타격도 작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내 스윙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새 시



즌을 향한 의욕도 내보였다.

올 시즌 초반은 김하성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는 주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손목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김하성을 주로 기용할 전망이다.

출전 기회가 늘어나게 된 김하성은 “기대보다는 타티스가 빨리 부상에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팀이 이길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샌디에이고는 5-1로 클리블랜드를 이겼다.

‘금 3·은 1·동 1’ 전남체육중 부상...전국대회 종합우승

전남체육중학교 복싱부가 전국대회에서 메달 5개를 수확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체육회는 전남체육중학교 복싱팀이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에서 금 3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해 중등부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김태수(3년)는 -42kg급 결승에서 이승훈(대전가오중)을 만나 3대 2 판정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46kg급에 출전한 유태민(3년)도 결승에서 최인우(운양신정중)를 만나 5대 0 판정승, -48kg급 임유빈(2년)은 결승에서 권종찬(대전가오중)을 4대 1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50kg급 권민준(3년)은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손목 부상이 악화로 기권해 은메달, -52kg 이승훈(2년)은 준결승에서 안현민(세종복싱클럽)에게 무너져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전남체육중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5



전남체육회는 전남체육중학교 복싱팀이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에서 금 3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해 중등부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은상 지도자·김태수·권민준·유태민·이승훈·임유빈·이현주 감독).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개를 수확해 중등부 종합우승기도 들어올렸다.

전남체육중 관계자는 “올해 첫 대회에서 중

합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둬 앞으로의 대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출전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여자컬링 ‘팀 김’, 세계선수권 준우승...역대 최고 성적

종전 한국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은 2019년 팀 민지의 동메달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 김(강릉시청·스킵 김은정)이 한국 컬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준우승을 차지했다.

팀 김은 28일(한국시간) 캐나다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2022 세계컬링연맹(WCF) 세계 여자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스위스의 팀 티린초니에 6-7로 석패했다.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결승에 오른 팀 김은 첫 우승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메달을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남겼다.

종전 한국 컬링의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은 2019년 대회에서 춘천시청의 팀 민지가 따낸 동메달이었다.

팀 김은 2018년 대회 5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이날 팀 김은 0-0으로 맞선 2엔드에서 3점을 허용한 뒤 줄곧 추격하며 경기를 풀어갔다. 1-2점 차로 따라가던 팀 김은 9엔드에서 1점을 얻어내 6-6 동점에 성공했다.

그러나 선공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한 10엔드에서 스위스에 1점을 내주면서 6-7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스위스 팀 티린초니는 예선부터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14연승으로 우승까지 일궈냈다. 2020년 대회부터 3연속 세계선수권 우승도 지켜냈다.

뉴스